

필리버스터 종결...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7일만에... 조국혁신당 "재거부시 대통령에 책임 묻겠다"

국힘, 처리 반발해 일제히 퇴장... 안철수, 당내 유일 찬성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법안표결에 앞서 이날도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 의원 7명이 찬반토론에 참여했다.

우원식 의장은 전날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흐른 이날 오후 3시 45분부터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 종료 가능성이 열렸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법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험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박정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성공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점을 들어 "야당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특검법) 만들어 시행한다면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라고 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야당이 상임위에) 안 들어왔잖나"라고 항의했다.

찬성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특검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사망사건은 갈거리 찢어져 있어 전도 파악이 어렵다. (특검으로) 통합해 사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께 직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당권, 영남·수도권 잡아야 승기

선거인단 각각 40%·37%...전체 규모 84만3292명 '역대 최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선거운동 초반 공략포인트가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4일 발표된 7·23 정당대회 선거인단을 보면 영남권이 약 40%, 수도권에 37%가 분포하면서 두 권역에서의 승부가 당 대표 경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29일 대구와 부산을 방문한 뒤로는 수도권 위주로 동선을 짜고 있다. 한 후보는 4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인천 서구와 경기 고양을 찾는다. 전날에는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 연구모임에 참석했고, 오는 5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뒤 용산 등 서울지역 당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후보의 이러한 수도권 중심 행보는 자신이 내세운 '중도·수도권·청년' 공략과 맞닿은 것으로 해

석된다. 당권주자들 가운데 가장 젊고,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제시하는 등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대거 몰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지구당 부활'도 제시한 바 있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몰린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등 영남권 공략에 더 주력하고 있다.

원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영남을 다섯차례나 찾았고, 나 후보도 영남을 세차례 방문했다. 윤 후보는 이날까지 TK만 총 세차례 방문해 당원들을 만난다. 이들의 영남권 공략은 한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측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설', 한 후보가 검사 시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데 대한 정서적 반감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들은 영남권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배신자' 프레임으로도 한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일부 주자들은 영남권을 벗어나 수도권 당심 훑기에도 나서고 있다.

원 후보는 이날 인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다. 나 후보는 김태홍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면담한 뒤 경기 수원, 용인, 성남 당원간담회를 연달아 찾았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정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인 84만3292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3·8 정당대회' 선거인단(83만9569명)보다 3723명 늘어난 규모다.

선거인단 중 대의원은 9440명, 책임 당원은 79만430명, 일반 당원은 4만3422명이다.

권역별 선거인단은 영남권이 40%로 가장 많고, 수도권은 3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8%, 서울 14%, 경북 13% 등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힘, 전대 앞 광주서 첫 합동연설회

8일 DJ센터...광주, 전남·북, 제주 민심 잡기

국민의힘이 7·23 정당대회를 앞두고 권역별 합동연설회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북, 제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4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정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중앙당 주요 당직자,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지역 당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당대회에 나서는 당 대표·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해 당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정당대회는 젊음 정당, 온라인, AI(인공지능)를 통한 혁신과 미래를 키워드로 당원과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광주를 시작으로 국민을 대통합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10일 부산에서 경남·부산·울산 합동연설회를, 12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15일 천안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17일 서울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차례로 연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 친명계, 광주 집결

시당 위원장 선거 앞 내일 조선대서 청년 주권 토크 콘서트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 집결한다.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표가 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친명 세력이 힘을 모으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광주청년회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조선대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에서 '광주 청년 주권 토크 콘서트'를 연다. 토크 콘서트는 '당원 주권 시대'를 주제로 광주 청년들과 광주에 혁신의 바람

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초대 혁신회의 공동대표였던 개그맨 서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게스트로 강위원 상임대표가 참석한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재강 의원부터 양문석 의원, 김동아 의원, 모경중 의원 등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 '박시영tv'를 운영하는 박시영 대표도 특별 손님으로 함께 한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성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